

달이 정말 두개였을까?

쌍둥이 달 탐사선 그레일 A·B호 발사 성공

'2개 충돌' 비밀 풀지 관심

달의 비밀을 벗기기 위한 무인 쌍둥이 달 탐사선이 10일 우주로 발사됐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무인 쌍둥이 달 탐사선 그레일(Grail) A, B호가 탑재된 델타2 로켓이 이날 오전 9시8분(미 동부시간)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무사히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달탐사선 그레일 A, B호는 발사 1시간여 만에 예정대로 델타2 로켓과 분리돼 달로의 우주여행에 나섰다.

두 무인 탐사선은 앞으로 4개월에 가까운 우주비행 끝에 그레일A호가 오는 12월31일, 그레일B호는 새해 1월1일 각각 달 궤도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들 두 탐사선은 이후 달 표면 55km 상공을 선회하면서 달의 '중력장(gravity field)'을 측정할 예정이

다. 과학자들은 중력장 지대를 선회하는 두 탐사선간의 거리 차이를 통해 중력장 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과학자들은 이를 통해 달 표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달 내부는 액체로 이뤄졌는지 고체로 이뤄졌는지 등 그동안 풀 수 없었던 비밀들을 파악할 방침이다.

두 탐사선을 통해 과학자들은 달의 중력을 1마이크론(0.001mm)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탐사선은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중력장 측정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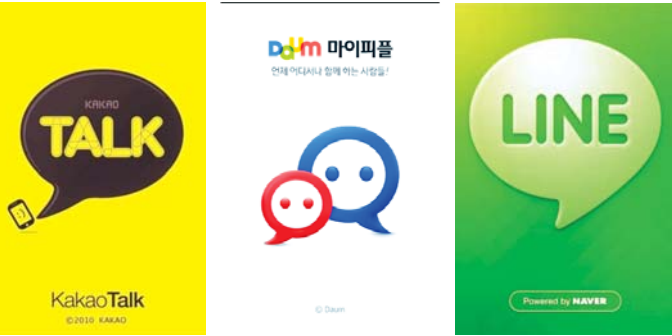
NASA의 과학탐구 분야 책임자인 에드 와일러는 "그레일은 단순히 말해서 달의 한가운데로 여행하는 것"이라면서 "달 내부를 조사할 것이며, 기존에 갖고 있던 것보다 100~1000배 더 나은 중력장 지도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전의 모든 달탐사 임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달 내부에 대한 정보를 그레일을 통해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레일에는 '문캠(MoonKAM)'이라는 카메라도 각각 4대가 달려 있는데, 이 카메라는 미국의 학생들이 요구하는대로 달의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줄 계획이다.

NASA는 이를 통해 달에 대한 탐구를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지금까지 1100개 이상의 학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상태다. 그레일의 달탐사는 인류 역사상 총 110회차 달탐사 임무이다.

그레일 달탐사 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매사추세츠공대(MIT)의 마리 아 주버 박사는 이번 탐사는 달이 지난 40여년간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과학계 일각에서 제기돼 왔던 '지구의 2개 위성이 충돌해 현재의 달이 됐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톡·마이피플·라인

모바일 메신저 시장 후끈

스마트폰 사용자끼리 무료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 시장이 뜨겁다. 중소벤처기업이 만든 '카카오톡'에서 시작된 모바일 메신저 열풍에 '마이피플'이 등장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애플과 구글은 물론,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텔레콤 계열의 SK커뮤니케이션즈, 삼성전자가 네이버 등이 잇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특히 단순하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능에 더해 무료 음성 통화, 영상통화, PC연동 기능 등 다양한 기능들을 선보이고 있다.

에서 스마트폰을 흔들어 연락처를 교환, 친구를 추가할 수 있는 'Shake it' 기능을 적용했다. 또한 이용자별 고유 QR코드를 제공해 다른 이용자들이 리더기를 통해 자신의 QR코드를 인식하는 것으로도 친구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일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IFA(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2011에서 '켓온'을 공개했다. 조만간 출시될 '켓온'은 전 세계 120여 개국, 최대 62개 언어를 지원한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폰에 미리 탑재돼 나오며 손글씨 등을 이용한 '움직이는 카드'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하지만, 여전히 모바일 메신저들이 남아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마땅한 수익모델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용자들의 욕구에 맞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또 개인정보 노출 등 보안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카카오톡측도 최근 수익 창출을 위해 게임연동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서비스 약관 변경에 나서면서 사용자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모바일 메신저가 음란물의 교환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별도의 여과장치 마련되어있지 않아 청소년들이 음란사이트의 주소나 사진, 동영상 등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통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망중립성'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음성·영상통화에 PC연동까지 다양한 기능 선보여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은 사실상 '카카오톡'이 점령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이미 2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익 창출을 위해 업계 최초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게임 연동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출시한 '마이피플'이 카카오톡을 맹추격하고 있다. 마이피플은 기본적인 모바일 메신저 기능은 물론 무료 통화, 영상통화, 음성폭주 등 다양한 기능들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무선인터넷전화(mVoIP) 기능으로 스마트폰 OS에 상관없이 사용자 간 무료 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NHN은 '네이버톡'의 실패를 딛고 최근 일본법인(네이버저팬)에서 개발한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한글화해서 제공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특히 오프라인 상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 '슈퍼지구' 발견

지구 질량의 3.5배 물 존재할 가능성

천문학자들이 새롭게 찾아낸 50개의 태양계 외 행성들 가운데 생명체 생존에 필수적인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슈퍼지구'가 발견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 보도했다. '슈퍼지구'는 지구형 행성이지만 질량이 지구보다 훨씬 더 큰 천체를 뜻한다.

WP는 천문학자들의 설명을 인용, HD85512b라는 이름의 이 행성이 태양과 36광년 떨어져 있으며, 태양보다 약간 작고 기온이 낮은 주황색 항성 HD85512의 주위를 59일 주기로 돌고 있다고 전했다.

지구보다 질량이 3.5배 더 큰 이 슈퍼 지구는 특히 항성 HD85512에서 기온이 가장 높은 가장자리 쪽에서 있는데, 이 부분의 대기 상태가 적절



하다면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소재 막스 플랑크 천문학 연구소의 리자 칼텐네거는 이 행성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

의 가장 따뜻한 가장자리에 있어 "마치 모닥불 바로 옆에 있는 것과 같다"며 "운이 좋다면 이 행성은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칼텐네거는 이것이 행성 표면의 물이 끓지 못하도록 기온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별빛을 반사할 수 있는 많은 구름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천문학자들은 그러나 이 새로운 슈퍼 지구에 대기가 존재하는지는 커녕 지구처럼 바위투성이인지 아니면 목성처럼 가스가 차있는지조차도 아직 알아내지 못했다.

또 이 행성의 대기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면 천문학자들이 행성의 이미지를 촬영해 물이나 이산화탄소, 기타 가스들의 흔적이 있는 밝은 부분을 분석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같은 작업을 할 만큼 충분히 정밀한 망원경이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쪽글 자랑 한마당

LG유플러스, 오늘부터

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에서 나타나는 한글 파괴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휴대전화 쪽글 자랑 한마당'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쪽글'이란 한글학회가 정한 문자메시지의 순우리말 표현이다.

LG유플러스가 청강문화산업대학, 한글학회가 함께 마련한 이 행사는 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3일 간 휴대전화 문자 참여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한국어와 지구촌'이라는 주제에 맞는 글을 맞춤법에 맞게 40자 이내(띄어쓰기 포함)로 작성, 지정된 휴대전화번호(청소년: 010-5740-9001~3, 일반: 010-5740-9004~5)로 보내면 된다. 청소년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이번 행사는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가입자 모두 참여 가능하며, 응모한 문자 메시지는 맞춤법, 띄어쓰기, 창의력, 바른 말 사용여부 등을 기준으로 한글 학회가 평가한다. 수상작은 오는 30일 LG유플러스 등 주최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한글날인 10월 9일 한글학회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최신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등 푸짐한 상품이 수여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맞춤법을 따르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거나 해괴한 줄임말을 사용하는 등 잘못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말 파괴현상을 바로잡고 우리말 바로 쓰기 운동의 저변확대를 위해 산·학·연 합동으로 기획했다"고 밝혔다.



깨끗하고 건강한 캐나다 청정자연에서 탄생한 - Natural Factors (내추럴팩터스) 드디어 한국에서도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 캐나다에서 태어난 50년 역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5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에도 우수한 품질확신!

2010년 12월 내추럴팩터스를 국제약품이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에서 건강을 찾아 연구하는 캐나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내추럴 팩터스

50년 내추럴팩터스 역사를 담았습니다!



캐나다 대표 브랜드 내추럴팩터스는 수십만 평의 자체 허브농장에서 재배한 자연원료를 최첨단 자체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기술진이 탄생시킨 고품질 명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은 50여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선택! -내추럴팩터스입니다!

Natural Factors 한국총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8번지 http://www.kukjepharm.co.kr

제품문의 : (031) 781.9081 (고객지원팀)